

일제의 대륙병참기지 강화와 학생 강제 동원*

- 경성지역 국제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경 남**

- I. 머리말
- II. 전시체제기 대륙병참기지와 항공기지의 필요성
- III. 일제의 경성지역 병참기지 강화와 학생 동원 정책
- IV. 경성지역 국제법 위반 사례의 특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의 전쟁 확대에 따른 조선의 병참기지 활용의 변화상과 일제의 전쟁시설과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학생 강제동원에 대하여 경성지역을 사례로 고찰하고, 학생 강제동원이 명백히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LO의 국제법 조항을 검토하였고, 일본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쟁의 변화에 따른 경성지역 학생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반도의 대륙병참기지 정책으로 인해, 경성지역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knkim@knu.ac.kr

학생 강제동원의 피해 실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먼저, 용산군사지구의 연병장, 용산병원, 남산도로공사, 항공기지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 둘째, 만주개척단으로 파견되어 학생들이 대 중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파견되었다. 셋째,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부여신궁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경기도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처럼 학생들에게 기름을 만들기 위한 송탄유를 채집하게 하였고, 항공기 엄폐시설, 방공호 파기, 개인용 공공용의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동원하였다.

이렇게 총독부가 경성학도근로동원본부를 통해 학생들을 강제 노동시킨 사실은 명백히 ILO의 국제법 제11조 학생 근로 동원 금지 조항과 제7조 미성년자 근로동원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재조일본인들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근로가 곧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전쟁에 명백히 총동원되었으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중 가장 밑바탕에서 희생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학생 강제동원, 국제노동기구(ILO), 조선총독부, 용산군사기지, 서울(경성), 대륙병참기지

I. 머리말

일제는 러일전쟁부터 경성에 조선군사령부를 두고 평양, 대구 등 주요 거점지역에 일본군을 배치하였다. 한국 강제 병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전쟁시설들을 설치하였고, 조선의 반대세력을 진압하기도 하였고, 만주까지 부대 인원을 파병하는 형태로 일본군을 적극 활용하였다.¹⁾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제2차세계대전까지 일제가 중국, 소련, 영국, 미국 등을 적으로 돌리면서, 식민지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주요 거점지역에 군사기지를 확충하였다.²⁾

당시 일제의 조선 대륙병참기지 활용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항공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항공기지를 만들어 나갔다는 점이다.³⁾ 주

- 1)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 주둔 일본군」 『한국사연구』109, 2000; 서민교, 「만주사변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32, 2002; 同, 「근대일본의 조선 주둔군에 대한 고찰-그 시원에서 1910년 한국병합까지」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朴廷鎬, 「近代日本における治安維持政策と國家防衛政策の挾間-朝鮮軍を中心に-」 『本郷法政紀要』第14号, 2005;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 주둔 일본군의 육군병사부 설치와 역할」 『한국근현대사연구』67, 2013; 조건, 「전시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서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5; 庵浴由香, 「朝鮮に常設された第19師團と第20師團」 『地域と軍隊』7, 坂本悠一 編, 吉川弘文館, 2015; 이민성, 「1910년대 중반 조선주둔 일본군 군영 배치계획과 군영 유지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83, 2017; 서민교,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 『서울과 역사』 98, 2018.
- 2) 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 3) 조선 항공부대와 관련된 논고는 다음 참조. 宮田節子,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15-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 일월서각, 1989;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주둔사』 중심, 2001;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하늘의 방공과 동원 1』 선인, 2012; 曹健, 「研究ノート:アジア太平洋戦争期の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軍の航空基地建設と運用」 『軍事史学』58-2, 2022; 権学俊, 「植民地朝鮮における飛行機表象と朝鮮總督府の航空政策(下)」 『立命館産業社会論集』 58-1, 2022; 김경남, 「전시체제기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 내 항공기지의 건설 : 대한해협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요 거점은 용산에 있는 경성을 비롯하여 나남, 대구, 광주군사기지와 진해해양기지, 부산요새 등이었다. 특히 1941년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고 태평양 일대가 전쟁터로 변화된 이후, 남해안 일대까지 전쟁시설을 강화하였다.⁴⁾ 이를 위해 총독부는 일반인은 물론 학생까지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하였다.

학생 강제동원 시기는 총동원법이 실시된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총독부는 중일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인공업지대를 만들기 위한 도시정책을 실시하였으며,⁵⁾ 이에 따라 경성과 부평 등에 주요 전쟁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강화하였다.⁶⁾ 이러한 과정에서 경성의 학생들은 어떻게 동원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인천 부평지역이나,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의 학생 강제동원에 집중되어 있다.⁷⁾ 경성의 경우는 조선의 수도 기능을 한 곳이며,

『역사와 경계』 124, 2022.

- 4) 각 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청구학술논집』 22, 2004;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2007;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70, 2009; 김경남, 「위의 논문」, 2009; 김윤미, 「일제말기 거문도 요새화와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22, 2012;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제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2012; 김천수,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향토서울』 87, 2014; 김홍희, 「일제하 羅南의 군기지 건설과 군사도시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2018;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嶺南學』 78, 2021.
- 5) 김경남, 『일제하 조선에서의 도시 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3.
- 6)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지배와 공간 :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연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태아, 2016; 토드 A. 헨리 지음. 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옮김,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처럼, 2020; 박명식, 「부평 조병창의 역사적 상징성과 유산 가치」, 『기전문화연구』 43-2, 2022.
- 7)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성현, 전시체제기 학교 대(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조선총독부의 학생동원정책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2, 2015;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 曹健, 「일제 말기 仁川陸軍造兵廠의 地下化和 강제동원 피해」, 『한국 근현대사 연

한반도의 군을 통할하는 용산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일제의 전쟁 전략이 변화되는 시기에 따라 경성의 학생 강제동원의 실상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⁸⁾ 하지만 아직까지 경성지역 학생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ILO의 국제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또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의 전쟁 확대에 따른 조선의 병참기지 활용의 변화상과 일제의 전쟁시설과 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학생 강제동원에 대하여 경성지역을 사례로 고찰하고, 학생 강제동원이 명백히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LO의 국제법 조항을 검토하였고, 일본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쟁의 변화에 따른 경성지역 학생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경성지역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은 주지하듯이 조선의 중심지로서, 일본제국정부와 군부의 가장 중요한 군수물자 공급의 요충지라는 점이다. 이곳은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한 곳이며, 조선 병참기지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치 지을 수 있다. 경성에는 철도 등 기간 산업을 비롯하여, 섬유, 고무, 화학공업, 철공소 등 293개 기업(1942년 현재, 자본금 1만엔 이상)이 조선총독부의 기업 통폐합 이후에도 상존하고 있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기업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성에는 일찍부터 근대 학교 시설을 많이 설치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 98, 2021; 김경남, 「대구·경북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嶺南學』 81, 2022; 同, 「일제의 부산·경남권 전쟁 시설 설치와 학생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역사문화연구 85, 2023.

8) 경성지역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서울역사편찬원에서 펴낸 논고(『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경인문화사, 2020)가 있으나, 학생 강제동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9) 서인원,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 『한일군사문화연구』 35, 2022.

주요 자료는 각 학교에서 작성한 학교사를 비롯하여, 당시 작성된 육군과 해군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경성일보, 매일신보, 조선신문 등 신문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외 잡지 및 일기 등을 참고하였다.

II. 전시체제기 대륙병참기지와 항공기지의 필요성

타이완(臺灣)과 조선, 가라후토(樺太:남사할린)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한 일본은 대중국 전쟁을 필두로 하여 대소련전, 대미전으로 전쟁을 확대해 갔으며,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에 항공기지를 만들어 나갔다. 한반도는 일본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으며, 태평양제도(諸島)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거점이었다.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우수한 무기와 군인들의 일용품, 주거시설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민의 노동력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¹⁰⁾

일본제국정부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까지 강제 동원하였다. 급기야 황민화교육으로 세뇌당한 순수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러한 실태는 당시 총독부나 일본 내각이 생산한 공문서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이른바 학생 ‘근로동원’ 기사를 토대로 잘 알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는 바로 일제의 전쟁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¹¹⁾.

한반도에는 이미 일제가 러일전쟁시기부터 경성에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10년 강제 병합 이후에는 북으로 나남, 평양과 남으로 대구, 광주에 거점 군사기지를 만들어 부대를 편성하였다. 1916년에 조선군은 도심부와 가까우면서도 고립된 섬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여의도에 간이비행장을 개설했다. 여의도비행장은 1927년 「항공법」을 시

10) Richard Burt, *New weapon Technologiees*, Adelphi Paper No.125, London, 1976.

11) 內閣, 「國家總動員法を台灣・朝鮮・樺太に設置する件」, 1938.5.

행하면서 정식 비행장으로 정비되었다. 1929년 4월부터는 일본항공수송 주식회사의 후쿠오카(福岡)-다롄(大連) 정기 항공이 취항했다.¹²⁾

일본 관동군이 조작한 1931년 9월 18일 류타오후[柳条湖] 사건을 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15년간 전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일제는 세력권 내 고도의 국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전체를 군사적으로 재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군부는 조선병참기지를 전쟁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면서, 일제는 한반도에 전쟁시설을 긴급하게 구축하였다. 북으로는 대 중국과 소련전을 위해 함경도와 평안도에 항공기지를 만들었으며, 남부 지역으로는 대 영미전을 위해 항공기지를 급속하게 추진하였다.¹³⁾ 이 과정에서 경성의 김포, 대구, 부산, 사천, 광주, 여수, 제주 등 조선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시설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이에 따라 일제는 남부지역에 약 22개의 항공군사기지를 건설하거나 확대하였다.¹⁴⁾

이렇게 후방병참기지의 전략적 항공기지 건설과 기업 정비에 따라, 일제는 필요한 노동력을 긴급하게 조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인·군속·학도병을 동원하였으며, 戰線 확대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은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였다.

경성지역 강제 동원은 수도 경성과 인천항을 연결하는 경인공업지대 건설과 항공기지 건설을 통한 전쟁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전략 전술과

12) 염복규, 「일제하 여의도비행장의 구성과 항공사업의 양상」, 『서울과 역사』 104, 2020, 211-247쪽.

13) 陸軍省, 「軍管區部隊方面軍隷下部隊人員調査表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數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08.15.~1945.08.31).

14) 조건, 「전시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조직과 활동」, 수요역사연구회, 『제국일본의 하늘과 방공·동원1』, 선인, 2012; 김경남, 「전시체제기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 내 항공기지의 건설 : 대한해협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24, 2022;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2023.

관련이 깊다.¹⁵⁾ 일제는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중일전쟁기에는 조선을 대륙병참기지로 만들어 중국과 전투하기 효율적인 체제로 만들었고, 태평양전쟁기에는 조선을 남태평양으로 가는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는 병참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지역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주요한 지구로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 지구는 경인지역의 군사지구를 방비하고, 일본과 만주로 갈 물자를 생산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되었다. 1930년대 들어 여의도비행장을 경유하는 항공로는 경성-신경(新京), 경성-청진 등으로 증가했다. 항공로 확장과 더불어 1932~1933년 여의도비행장은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활주로를 축조하고, 다시 한차례 정비되었다.

국제 간선항공로는 일본항공수송이 주관하였으며, 조선 내 ‘지선’ 항공로 개설과 운용은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항공연구소였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파산하면서 그 임무는 신용옥이 설립한 조선비행학교-신항공사업사로 넘어갔다. 사업 수완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가진 신용옥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과 밀착하여 일본항공수송이 진출하지 않은 호남 지역 항공로(경성-이리-광주)를 개설했다.¹⁶⁾

1940년대에는 대 영미전으로 김포 항공기지를 새로 만들어 항공기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⁷⁾ 이 과정에서 식민지 도시 건설 정책의 변화도 나타났다. 바로 방공과 보안을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군사기지를 위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다.¹⁸⁾ 그 법률적인 기반은 1940년 11월 29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개정이었다.¹⁹⁾ 주요한 포인트는 ‘보안’과 ‘防空’ 정책을 특히 강화하였으며, 조선총독이 독단적으로 시가지계획 구역을

15) 高橋三七, 『事業과 郷人』, 1939.

16) 엽복규, 위의 글, 211-213쪽.

17) 엽복규, 위의 글, 2018, 조건, 위의 글, 2023 참조.

18) 한반도 도시 개발은 1941년 태평양전쟁의 확전 이후 경성, 부산, 대구, 나진 등 전략적 군사 지역 중심 개발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영남학』 78, 2021 참조.

19) 內閣, 「朝鮮市街地計畫令令中ヲ改正ス」, 『公文類聚·第六十四編·昭和十五年·第百十六卷·地理·土地·森林·都市計畫、警察』 1940.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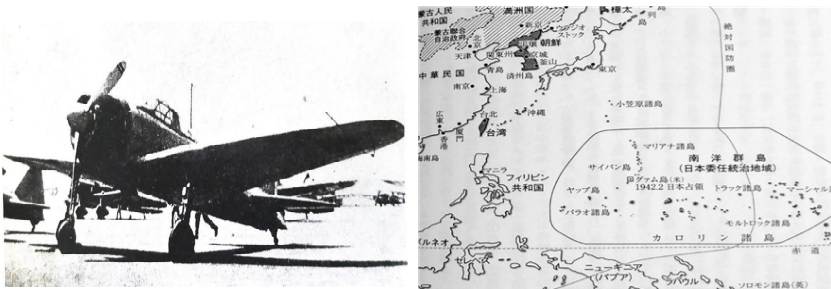
확장하고 토지구획정리 지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공업 통제와 관련하여 군복이나 군화, 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모든 생산 시설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기업 이외의 기업들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²⁰⁾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의 변화로 남한지역 일대의 전략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당시 일제의 도시계획은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공업지대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였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부평과 김포, 용산, 여의도를 잇는 해양과 항공노선을 연결하고, 도로망을 연계하는 작업에는 많은 노무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²¹⁾

일제 말기가 되면 경성 북부는 관동군이, 남부는 조선군이 관할하게 되었다. 일본 육군성의 「南朝鮮主要兵团配置要圖」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 다수의 항공부대가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경기-경상도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제1항공부대는 경성 여의도에, 제2항공부대는 김포, 제3항공부대는 용산에 배치하였다. 이는 한반도 남부 지방이 항공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²²⁾ 부산과 남해안의 요새지대에 항공 관련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한반도의 후방병참기지의 역할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그림 2] 일본 제로식 함상전투기와 일본의 세력권



20) 1938년 이후 공업의 통제함에 대해서는 김인호,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동북아 역사재단, 2021 참조.

21) 엄복규, 「1933~43년 일제의 경성시가지계획」, 『한국사론』 46, 2001.

22) 陸軍省, 「위의 사료」 1945.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전투의 양상에서 항공전과 신속한 보급이 더욱 중요해졌고, 특히 태평양전쟁에서 전개되었던 많은 해전에서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투기의 전개가 전략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96식 함상전투기의 차기 전투기로 미쓰비시사(三菱社)는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개선한 영식(零式) 함상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다. 해당 전투기는 제식 명칭보다는 ‘제로센(零戰)’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²³⁾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편이 너무나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항공 전력에 필요한 도로, 비행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상당한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성과 인천의 군수품을 생산하고 실어 나르기 위하여 김포에 비행장을 확대하게 되었다는 것과 부평에 대규모의 조병창 군수공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해준다. 수도 방비의 전략적 중요성은 관내 일본군의 항공부대를 상당히 많이 편성했다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²⁴⁾

이외에도 단순한 비행전대나, 중·대대를 제외하고도 防空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군사 엄폐시설과 포대가 설치되었다.²⁵⁾ 일본은 전쟁이 막바지에 달해갈수록 전선의 유지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전쟁을 위한 인력, 물자의 충당은 물론 전선이 점점 일본 열도로 좁혀져 왔기에 수비를 위한 시설의 마련 또한 고려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동원은 동원된 사실 또한 중요하지만, 동원을 수행한 시설에 관련한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방공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한반도 주민의 안전 보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전시에 경성사관구에는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임무가 하달

23) 伊沢保穂、航空情報編集部, 『日本海軍戦闘機隊: 付・エース列伝』 酣燈社〈航空情報別冊〉, 1975.

24) 防衛廳防衛研修所,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航空部隊配置要圖(1945.8.31.).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126쪽.

25) 朝鮮總督府, 『官報』, 1937년 11월 4일자(제3242호), 「告示」

됨으로써, 8천여 명 이상의 군인 군속을 동원하였으며, 학생들도 강제 동원되었다.²⁶⁾ 특히 주목할 만한 부대가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로서, 일본 육군의 수송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경인지역은 군사수송을 위한 병참선이 시작되는 공간으로서 이는 조선 주둔 일본군 병참사령부가 지부에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전쟁 말기에 이르면서 최후까지 싸우기 위해 1945년 1월 22일 한반도에 제17방면군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조선 주둔군으로 활동했는데, 사령관도 조선군관구 사령관이 겸직하였다. 이후 소련과 전쟁이 발발하자 관동군 예하로 편입되었다가 일제 패망 후 미군 제24군단에 의해 무장 해제되며 해산되었다.²⁷⁾

III. 일제의 경성지역 병참기지 강화와 학생 동원 정책

1. 용산군사기지 및 육군시설의 정비

용산군사기지는 일본군 한반도 상주사단의 심장부로서, 1908년 용산에 한국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된 이래, 제20사단 사령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단 관련 부대와 건축물이 늘어났다.²⁸⁾ 1921년 당시 용산기지에 주둔 중이던 제20사단 산하 부대는 보병 제39여단(평양) 산하의 제78연

26) 陸軍省,『朝鮮軍人馬自動車概数表』,防衛省防衛研究所(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68300)

27) 第十七方面軍朝鮮軍管区參謀部,『第17方面軍』,『第17方面軍朝鮮軍管区諸部隊通称号所在地一覽表 昭和20年7月10日現在』,1945,防衛省防衛研究所(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1093500). 자세한 것은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2015, 167쪽.

28) 1908년 당시 용산기지는 군 사령부, 군사령관 관사, 사단 사령부, 사단장 숙소, 직원 숙소, 보병연대 본부, 보병연대 병영, 기병중대 병영, 야포병중대 병영직원 숙소 등이 건축되었다. 이후 용산병기지창, 육군창고, 위수병원, 위수감옥(1909년 9월), 군악대의 건물과 각 숙소 및 마사, 사격장 등이 건설됨. 김천수,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서울과 역사』 87, 2014, 173쪽..

대, 보병 제40여단(용산) 산하의 제79연대, 공병 제20대대, 기병 제29연대, 야포병 제26연대이다.²⁹⁾

전시체제기에 들어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조선군은 제20사단 사령부를 일시적으로 용산에서 만주로 이전하였다가, 1932년 4월에 용산기지로 복귀시켰다. 1937년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침략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화되었다. 이에 용산기지는 총동원체제라는 상황하에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책집행기지로 변화하였다. 1938년을 경계로 조선군이 관동군의 후방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1942년 7월 16일 제19사단과 제20사단에 동원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조선군은 우수사단을 편성하고 위수지에서의 작전준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9월 일본군이 사단 편제 방식(1개 사단 내 4개 연대 편성 → 3개 연대 편성)을 바꿈에 따라, 제19사단 보병 제74연대와 제20사단의 보병 77연대는 제30사단(사령부 : 평양)의 창설 부대로 편입되었다(1943년 5월 편성명령). 이후 전황이 악화되면서 제20사단은 뉴기니아 방면으로 파견되었다.

한편, 일본의 대본영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1944년 5월 조선군사령부를 전시부대로 편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일본의 본토가 연합군의 전투기의 공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본영은 1945년 1월 「제국육해군작전계획대강」을 제정하였다. 「제국육해군작전계획대강」에서 조선군은 본토 결전을 위한 준비에 동원되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에는 조선군사령부 대신 제17방면군사령부와 조선군관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용산기지에는 제320사단, 박격 제30대대, 고사포 제152대대, 제12공병대사령부, 경성사관구부대, 조선포로수용소,

29)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 (1894~1945)」 『서울학연구』 29, 2007. ; 김천수, 「위의 논문」, 2014 : 서민교,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 - 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 『서울과 역사』 98, 2018. ; 김윤미, 「용산기지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Urban plans』 8-2, 2021. ; 문혜진 외, 「근현대 용산기지를 둘러싼 神社의 변천사」 『서울과 역사』 117, 2024.

경성구금소, 육상근무 제183부대, 제210부대, 제13부대, 특설육상근무대 109부대 등이 주둔하였다. 또한 조선총독관저, 조선군사령관 관저, 사단 및 여단장의 관저, 경성육군병원, 경성사령부, 조선헌병대사령부, 조선화물창, 제2장갑열차, 제5철도감부, 경성육군연료부 등이 있었다. 주둔 부대 및 시설의 면면은 당시 용산이 지원기지이자 방공기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³⁰⁾

[그림 4] 삼각지쪽에서 바라본 보병 78연대와 보병 79연대 구역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출전 : 김윤미, 「용산기지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Urban planners』 8-2, 2021, 50쪽.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용산기지의 전쟁시설 가운데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용산 연병장, 배수지, 경성육군병원, 조선군사령부 등이 있다. 또한 학교 시설을 활용한 전쟁시설로는 육군병지원자훈련소가 있다. 이 훈련소는 1938년 6월 경성제국대학 내에 처음 설치되었다.³¹⁾ 넓은 부지를 보유한 학교는 유사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³²⁾

30) 김천수,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서울과 역사』 87, 2014, 165쪽.

31) 이 지역에 설치된 육군병지원자훈련소 부지에는 군무예비훈련소(1944년 4월), 남조선 국방경비대(1946년 1월), 국방경비대사관학교(1946년 5월)이 설치된 바 있다.

32) 조건, 「일제 말기 일본군의 경성지역 조선인 군사동원과 관련 유적 현황」 『일제 말기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과 제17방면군사령관이 미군에 정식으로 항복함에 따라, 일본군은 용산기지를 포기하였다.

2. 식민지 학생 노무동원 시스템 구축

일제는 경성지역의 전쟁시설을 건설하거나 식량을 증산하는 활동 등에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물론 학생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강제 동원은 이미 총동원법 제정 이전부터 실시되었다가,³³⁾ 그 법적 기반이 된 국가총동원법은 제국의회를 거쳐 법률 제55호로 제정되었고, 히로히토 일왕이 최종적으로 1938년 3월 31일에 결재하였다.

고노에 내각은 「國家總動員法」을 그해 4월 1일에 공포하였고, 5월 5일에 시행하였다. 식민지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타이완, 가라후토(樺太)에 시행하는 건’을 실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징용령’과 ‘직업소개소관제’, 제3차 조선교육령(1938~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1943~1945년) 개정을 통해 학생 강제 동원의 법적 체계를 만들고, 동원을 위한 일수도 늘려갔다.³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에 연맹을 만들어 국민총동원 근로정책의 시행과 동시에 중등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동원 계획이 조선 각 지역 학교에 하달되고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학생 동원 정책을 위하여 제3차 교육령을 근거로 ‘집단근로운동’이라는 것을 고안하였고, 6월 경에는 학교에도 학도근로동원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학도 근로보국대 실시요강’을 발표하고, 여자 중등학교도 포함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시행하였다.³⁵⁾ 당시 학무국의 시오바라 학무국장이 중심이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서울역사편찬원, 2020, 293~305쪽.

33) 朝鮮總督府, 「國家情神總動員實施要綱」, 1937.8.24.

34) 학생 동원 시행령과 조선교육령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조. 김윤미, 「근로보국대 제도의 수립과 운용 : (1938~1941)」,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7; 전성현, 「전시체제기 학교 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석당논총』 62, 2015; 김경남,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식민지배』, 경북대 출판부, 2020.

35) 허수열, 「일제말 조선 내 노동력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되어 경기도내 18개 남녀 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동원시스템을 만들어, 용산 육군연병장과 남산주회도로, 육군병원, 조선신사 등에서 근로 동원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³⁶⁾

한반도에는 조선연맹을 행정구역, 일본단체, 학교를 기본단위로 조직하였다. 총독부-도지사-부윤/군수-직할 학교장으로 하달되는 구조로 조선총독부 아래에 일반인,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경성지역 학교근로보국대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학생동원은 일제가 1932년도에 제정된 ILO(국제노동기구)의 제11조 학생 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 취한 조치였다. 이렇게 일반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학생 강제동원도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중층적 결재구조 속에서 철저하게 법을 통해 집행하였다.³⁷⁾

이처럼 일제의 강제동원은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수행되었다. 경인지역의 전쟁시설을 만들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모두 당시의 총독부와 일본내각의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었다. 경인지역에는 김포공항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용산부대에는 연병장이나 배수구를 만들거나 육군병원에서 종사할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1944년 이후 학교를 병영으로 만들었다. 각 학교의 학생을 동원하여 교내 정지작업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1945년 4월까지 경성사관구 사령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당시 이 사관구의 관할 구역은 수원, 부평, 인천 등까지 걸쳐 있었다. 이러한 진행을 통해 모든 정치 행정의 중심지인 경성과 주변 부평의 조병창을 연결하고, 인천항까지 연결하는 경인공업지구를 군사적 거점과 연결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전쟁시설에 일제와 군부는 학생을 경성학도근로본부에 배속시켜 강제 근로 동원하였다.³⁸⁾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조선인 전시동원의 분류를 병력동원, 노

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5, 328쪽.

36) 『每日申報』, 1938.6.12. 6.16. 6.28.

37) 김경남, 「전시체제기 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35, 2018, 187~193쪽.

무동원, 여성동원으로 하고 있지만,³⁹⁾ 거기에 학생동원을 별도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제는 경성지역 학생을 어떻게 강제동원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제는 조선교육령 제3차, 제4차를 개정하면서, 근로동원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전시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양성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 말기에는 교육을 포기하고 전시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을 이용했는데, 중고등학생, 전문학교 학생은 물론 국민학교 학생까지 동원하였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ILO (국제노동기구) 제29호 협약의 제11조 학생 강제 근로동원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⁴⁰⁾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방학을 이용해 단체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거나 도로공사와 같은 일에 동원되었다. 특히, 학생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체득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육체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⁴¹⁾

일제는 1938년부터 1941년까지는 법령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을 '학도근로보국대'라는 형태로 동원하였다. 동원조직은 총독부에 학도근로보국대 지도총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각도에는 '지도본부'를 설치, 학교에는 학교장이 근로보국대 대장이 되었고, 20명 단위의 반을 조직하였다. 지휘계통은 군대식으로 하였으며, 초기 학생들은 재학 중 2회 이상 근로보국대에 동원시키도록 정하였다.⁴²⁾ 하지만 점차 일수를 늘려나갔다.

일제는 중국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해 한반도 내 군사 거점과 공업지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학생들을 대거 동원하였다. 그들은 중일전쟁을 위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개시되자 남태평양과 일본 본토를 사수하려는 목적 아래 한

38) 朝鮮總督府, 「學徒勤勞報國際實施要項」, 1938.

39) 山田昭次, 古庄 正, 桶口雄一,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6, 38쪽.

40) ILO국제조약 제11조.

41) 홍순권 외 5명,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275~278쪽.

42) 朝鮮總督府, 「學徒勤勞報國際實施要綱」, 1938.

반도 남부 거점지역도 후방병참기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⁴³⁾ 여기서 학생근로동원의 역할은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거치면서 전면적이고 중심적인 역할로 전환되었다.

IV. 경성지역 국제법 위반 사례의 특성

1. ILO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정부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교육령이 당시 ILO의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자체가 강제 동원의 명확한 증거이지만, 이들이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국제법 또한 위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LO에서는 1932년부터 학생 근로 금지를 선언하였고, 일본 역시 비준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30일 이내로 학생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ILO 제29호 협약(CO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1조 학생 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이 과정은 '근로 교육'이나, '근로봉사' 등으로 표현되며 은폐되었다.⁴⁴⁾ 이후 제4차 교육령에서는 수업을 전폐할 수도 있게 하여, 일제는 더욱 심각하게 ILO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일제가 단행한 식민지 사람들의 강제동원은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인데, 한국의 학생들을 강제 동원한 것은 당시 국제적으로 협약한 학생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그 위반에 해당하는 중심법은 1938년 식민지 조선에 시행한 국가총동원법과 학생을 동원하기 위해 개정한 제3차, 제4차 조선교육령이다.⁴⁵⁾

43) 김경남, 『일제의 식민도시 건설과 자본가』, 선인, 2015. 참조.

44) 『毎日申報』, 1938.8.13.

일제가 국제법을 위반한 근거는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ion 이하 ILO)의 학생강제노동 금지조항이다. ILO가 만들어진 것은 러시아혁명이 발생하여 사회주의가 식민지 여러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것과 각국의 노동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9년 4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46개국이 모여, 제1차 세계대전을 갈무리하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거론되어, 국제 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국제노동기구 설립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베르사유 조약 등의 강화 조약 제13편 노동에 약관 PART XIII Labour로 기재되었다.⁴⁵⁾

국제노동기구 설립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일본 등 세계 150 개국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학생들에 대한 강제 근로동원 금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30년 6월 1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14차 회의에서, 회기 의사 일정의 첫 번째 의제인 강제근로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제안을 국제협약의 형식으로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30년 6월 28일에 강제근로 협약을 채택하였다.

ILO는 1930년 제29호 강제 근로 폐지를 목적으로 노동에 관한 협약을 이끌어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성년자나 학생들에 대한 강제 동원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ILO에서 말하는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의미한다. 그 요점은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조 제1항을 보면,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사용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강제근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하여 강제근로는 경과 기간 동안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만, 또한 예외적 조치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5) 일제의 ILO국제법 위반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경남, 위의 책, 20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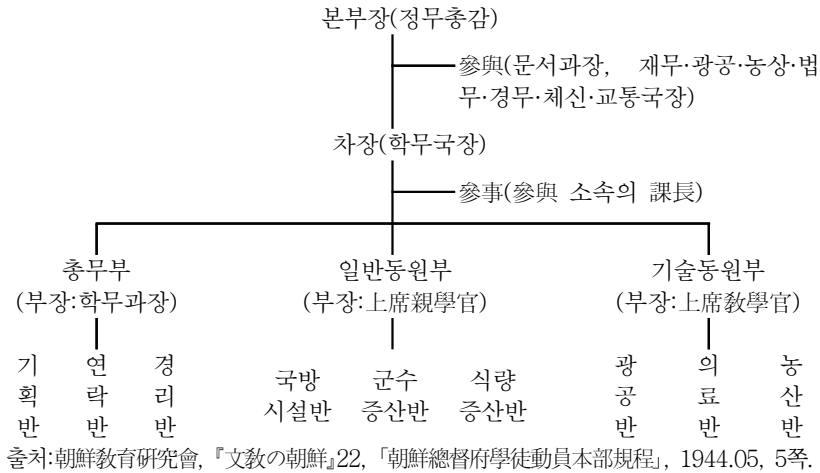
46)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은 헌장의 전문에 나타나는데,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노동기구 헌장).

이러한 국제협약을 선언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 등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독일의 나치는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각국을 침략하였으며, 유대인을 강제노동수용소에 처넣어 강제 동원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식민지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노무 동원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일본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이판, 괌 등 태평양 섬에 수십 개의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조달하려고 하였다. 조선인들은 이 전쟁의 가장 밀바닥에서 희생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 강제동원에 대한 일제의 ILO국제법 위반 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인 1938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본 강제동원 법령을 토대로 전국의 학생들을 ‘학도근로보국대’라는 형태로 동원하였다. 이후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전국 학생들을 ‘학교총력대’라는 조직으로 동원하였다. 특히 1944년부터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으로 동원 대상을 늘렸다. 이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학생 동원이 일제의 국가총동원법령을 기반으로, 조선교육령을 통해 동원 일수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보였다. 는 것이다. 학생 근로 조직과 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일제강점기 학생 근로 조직 및 기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무총감을 필두로 학무국장이 주도하여, 총무부, 일반동원부, 기술동원부로 나누어 학생 동원을 체계화하였다. 경성지역의 각 학교에는 ‘학교총력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여러 작업에 동원했는데, 학생들이 주로 동원된 곳은 모내기나 벼베기 등과 같은 식량증산 보조 작업과 학교 병영시설에 동원되어 정지작업을 하거나 세탁, 바느질 등이었다. 하지만 무기나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공장에 배치되거나, 용산연병장, 용산병원, 비행장, 대피소 건설, 도로공사와 같은 전쟁 준비에 동원된 바가 있다.

ILO 국제법 제11조에는 학생을 근로 동원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학도근로봉사대를 조직하였고, 1941년 이후에는 학도총력대라고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심지어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학생은 4학년 이상을 동원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저학년 아동들도 동원될 때가 많았다. (1942년 현재 학생 수 2,016,756명) 이 학생들은 주로 피 뽑기, 종자채취 등에 동원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종래 하던 청소 등 단순작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근로를 시키기도 하였다.⁴⁷⁾

이렇게 학도근로봉사대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ILO의 학생 근로동원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금지조항도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살짜리 1학년 학생도 동원한 것을 보면, 일본은 전쟁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성권역 ILO 국제법 위반 사례

1) 동원 대상 학생 수

그러면 당시 학생들을 어떤 규모로 동원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문지상에서 보면, 총독부에서는 5천명부터 3만명까지 매번 상당수의 학생을 동원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만큼 ILO 국제법을 위반한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수를 알 수 있지만, 총독부에서 펴낸 통계 연보에서 경성지역 학생 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체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 수를 살펴보자.

[표 1] 1938~1942년 학생 수 통계

연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합계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38	1,050,371	92,991	51,420	29,353	2,980	2,408	1,229,523
1939	1,215,340	96,156	57,555	31,564	3,443	2,572	1,406,630
1940	1,385,944	97,794	68,281	33,075	3,865	2,766	1,591,725
1941	1,571,990	99,316	76,031	35,328	4,166	3,124	1,789,955
1942	1,779,661	103,831	86,110	39,147	4,505	3,502	2,016,756

출처: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38~1942년에서 작성.

47) 부산일보, 위와 같음. 자세한 것은 전성현, 「일제말기 경남지역 근로보국대와 국내노동동원」 『역사와경계』 95, 2015, 195쪽 참조.

표에서 보듯이, 학생수가 1938년에 1,229,523명이던 학생이 1942년이 되면 거의 두 배인 2,016,756명으로 늘어난다. 이 시기가 학생들을 노동력 동원으로 조직화했던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생까지 무상으로 노동력을 취하려던 일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초등학생은 조선인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일본인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체제가 경성사회를 바라볼 때, “물자 공출과 인력 동원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기사가 학원·학교 및 학생·생도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동원’에 관한 것이었다.⁴⁸⁾ 경성은 식민지의 수도로서 조선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 ‘학원도시’였다. 1941년 9월 부내 학생의 숫자가 159,000여 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학생 동원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⁴⁹⁾

경성의 학교와 학생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등학교, 고등여학교, 전문·대학교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8~1942년 판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지면상 1942년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⁵⁰⁾

48) 김경호, 「전시체제가 경성 사람들의 저항」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서울역사편찬원, 2020, 136~147쪽.

49) 「학도 15만 9천, 경성부내의 초, 중, 대학생의 총수」 『매일신보』 1941년 9월 9일.

50) 초등학교(당시 국민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표 2] 1942년 경성지역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학생 수

연번	학교명	학생수		
		조선인	일본인	합계
1	京城中學校(공립)	25	1,110	1,135
2	龍山中學校	32	1,107	1,139
3	京城城東中學校	34	790	824
4	旭邱中學校	307	328	635
5	京畿中學校	1,145	-	1,145
6	景福中學校	1,111	-	1,111
7	養正中學校(사립)	781	-	781
8	培材中學校	886	-	886
9	普成中學校	796	-	796
10	徽文中學校	849	-	849
11	中央中學校	848	-	848
12	京城第一公立高等女學校	-	1,098	1,098
13	京城第二公立高等女學校	5	1,094	1,099
14	京城舞鶴公立高等女學校	237	240	477
15	京城第三公立高等女學校	11	328	339
16	龍谷高等女學校	32	925	957
17	淑明私立高等女學校	684	-	684
18	進明私立高等女學校	445	-	445
19	梨花私立高等女學校	661	-	661
20	培材私立高等女學校	456	-	456
21	同德私立高等女學校	711	-	711
	총계	10,056	7,020	17,076

연번	학교명	학생수		
		조선인	일본인	총계
1	京城工業學校	549	621	1,170
2	京城農業學校	528	145	673
3	京城商業學校	-	900	900
4	德壽(商業)實業學校	329	1	330
5	京城職業學校	1,063	19	1,082
6	京城女子職業學校	326	43	369
7	善隣實業學校	764	477	1,214
8	東星實業學校	520	-	520
9	京城女子實業學校	688	-	688
10	大東實業學校	595	-	595
11	漢城實業學校	394	-	394
12	德成女子實業學校	-	-	-
13	向上實業學校	348	-	348
	총계	6,104	2,206	8,28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등학교는 17,076명이고, 실업학교는 8,283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인은 10,056명과 6,104명으로 각각 3분의 2가 조선인에 해당한다. 경기중, 경북중, 양정중, 배재중, 보성중, 휘문중, 중앙중학교에는 조선인 학생들만 다녔고, 경성, 용산, 성동중학교에는 일본인 학생이 대다수였다. 여학교의 경우에도 숙명고등여학교, 진명, 이화, 배재, 동덕사립고등여학교에는 조선인만 있었고, 경성제1공립, 제2공립, 제3공립고등여학교에는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다.

실업학교의 경우에는 조선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성직업학교로 1,063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성여자직업학교도 조선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동성실업, 경성여자실업, 대동실업학교 등은 모두 조선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실업학교의 경우는 3분의 2가 조선인이고, 3분의 1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수

연번	학교명	학생수		
		조선인	일본인	총계
1	京城法學專門學校	137	122	259
2	京城醫學專門學校	70	272	342
3	京城高等工業學校	80	425	505
4	京城高等商業學校	96	238	334
5	普成專門學交	546	-	546
6	京城鑛山專門學校	95	174	269
7	旭醫專門學交	239	-	239
8	延禧專門學校	505	-	505
9	梨花女子專門學校	527	1	528
10	京城齒科醫學專門學交	208	272	480
11	京城藥學專門學校	113	224	337
12	惠化專門學校	301	3	304
13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	235	59	294
14	淑明女子專門學校	195	92	287
15	明倫專門學校	54	1	55
16	京城帝國大學校(本科) 法文學部	166	148	314
17	京城帝國大學校(本科) 醫學部	204	210	414
18	京城帝國大學校(本科) 理工學部	25	64	89
19	京城帝國大學校(豫科) 文科, 理科	201	342	443
	총계	3,997	2,647	6,544

출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2년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학생수는 모두 6,544명인데, 그 가운데 조선인이 3,997명, 일본인이 2,647명이었다. 경성법학전문학생은 259명인데, 조선인 학생은 절반 정도였다. 보성전문, 육전문, 이화여전 등에는 대부분이 조선인이었으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일본인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2년 현재 경성지역 중등학교 이상 총학생 수는 31,903명이었다. 그 가운데 경성지역 중등학교의 학생은 10,149명으로, 조선인이 6,814명, 일본인이 3,335명이었다. 고등여학교의 학생수는 6,927명으로 조선인이 3,242명, 일본인이 3,685명으로서

일본인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업학교는 일본인이 2,206명이고 조선인이 6,104명으로서 총 8,283명으로 일본인에 비해 3배로 많았다.⁵¹⁾ 전문학교·대학교는 조선인이 3,997명, 일본인이 2,647명으로 총 6,544명이었다. 이렇게 전시체제기 학생 동원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동원되었지만, 조선인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 그에 대해 반발을 했다가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2) 경성 학생 동원의 대표적인 국제법 위반 사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권역의 학생 강제 동원의 국제법적 불법 사례는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벌어졌다. 경성권역 학생 동원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식량증산, 송탄유를 위한 솔방울 채취, 도로공사, 운동장 병영화 등도 있지만, 주로 용산군사기지의 정비, 방공호 구축, ‘만주개척단’으로 파견, 부여신궁 신축 등에 동원된 것이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산군사기지 연병장 시설 정비 공사, 육군 병원 운동장 조성, 배수구 공사, 육군묘지 정비, 조선군사령부 방공호 구축, 군 사령부 내 토목공사 등을 들 수 있다. 용산군사기지 시설 정비와 조선군사령부 방공호 구축 등에는 경성약전, 경성사범 등과 경북중, 경성중, 선린중 등 거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1938년 경성지역 학교근로보국대의 노동력 동원 현황은 위의 전쟁 시설 이외에도 통상적인 도로개수 공사나 신사정비 등 폭넓게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성대학교를 비롯하여 경성중학교, 실업학교 등 남학교에서는 용산군사기지 정비공사, 용산병원을 비롯하여 학교 운동장 정비공사나 주변 도로공사, 농도와 실습지 개설, 통상적인 도로 개수, 신사 정비 등에 폭넓게 동원되었다.

이외에도 경성고등여학교를 비롯하여 숙명여학교 등 여학교의 사례는 공설운동장의 블록 정지작업, 실습지 손질 작업, 조선신사 경내 청소. 메

51)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42년판.

탄 발생 장치 공사 작업, 출정 군인 가족 봉사, 승강구 공사 작업, 군복 수선 등에 폭넓게 동원되었다.⁵²⁾

1938년 6월 시오바라 학무국장은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학교근로보국대」를 만들고,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집단근로 대보국운동’이라 하여, 2만 명의 소학 교원과 5천 명의 학생을 동원하는 구체안을 작성하였다. 학교에서 가까운 농산어촌에서 하계휴가 중 근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⁵³⁾ 6월 16일에는 경성제대 학생들이 우이동의 사방공사, 개성약초원, 회춘원 테니스코트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다.

7월부터는 경기도의 근로보국대 이름으로, 3만 명의 남녀 학생을 동원하였는데 경성지역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7월 15일에는 경성고상, 경성의전 학생들이 조선신궁과 청량리, 종암리, 뚝도면 구의리에서 펜 대신 삽을 들고 신 교사와 운동장 땅고르기를 실시하였다. 21일부터 조선신궁에 모여서 결성식을 거행하고, 경기도 내 18개 남녀 사립 중등학교 학생들이 용산 육군연병장 남산주회도로, 육군병원 등에서 근로를 강요당하였다.⁵⁴⁾ 21일부터는 경기도 관하 남녀 중등 22개교, 남자 중등 20개교 생도 4,449명 380班, 토목공사, 여자 중등 12개교 1,882명 92반, 신사 경내의 청소작업에 동원되었다.⁵⁵⁾

【표 4】 1938-1940년도 일제의 ILO 국제법 주요 위반사례 (일부)

연번	출처	제목	색인어
1	매일신보 1938.07.22	경기도내 경성중학 이외 32교 6천 남녀학생 근로보국대 결성식	인천, 경성, 남녀중등학교생, 학교근로보국대본부장 시오바라(鹽原)학무국장,
2	조선신문 1938.07.22	학생근로보국대 일제히 맹활동 개시.	경성사범, 경성중학, 용산중학, 경기상업, 선린상업

52) 毎日申報, 「非常時克服意氣로 男女學徒愛汗奉公, 全鮮中等以上學校가 一齊動員하여 學園勤勞報國熱高潮化」(1938.7.17.).

53) 毎日申報, 1938.6.12.

54) 毎日申報, 1938.7.12. 京城日報, 東亞日報 1938.7.15.

55) 京城日報, 東亞日報, 1938.7.15.

연번	출처	제목	색인어
3	매일신보 1938.07.23	경기 각 군 근로보국대, 공사장으로 총 진군,	여주, 중앙선 철도공사장
4	경성일보 1938.07.24	우리들의 학교는 우리들의 땀으로,	경성여자사범 근로보국대, 용두정 신교사
5	경성일보 1938.07.26	미나미 총독의 격려에 학생근로보국대 큰 힘	미나미 총독, 용산연병장, 조선신궁
6	조선신문 1938.07.31	운동장 개설 등등, 경성중 생도의 근로 봉사	경성중학교, 육군병원 운동장, 교내 스탠드
7	조선신문 1938.08.13	학생근로보국대 작업 상황 양호, 예기 이상 효과!	용산연병장,, 학생근로보국대, 조선신궁, 용산육군병원
8	매일신보 1939.06.04	전 조선 학생 10만 명 동원, 남녀 중등학교	학무과, 경기도 중등남녀학교 1만 2,300여 명
9	매일신보 1939.06.04	제1착 신궁 봉찬전 확장, 학생·생도·청년단근로대	조선신궁봉찬전, 제1착 출동, 400평에서 850평으로,
10	조선신문 1940.08.24	근로에 돌진, 경사학생 여름 봉사	경성사범학교, 육군묘지 정리 및 제초,

당시 매일신보, 조선신문, 경성신문을 보면, 1939년과 1940년은 동원의 형태는 비슷한데, 소학교 학생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하계방학을 활용한 학생 동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등학교 서빙고 모래파기, 육군묘지 확장공사, 조선신궁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약 3만 명의 학생이 동원되었는데, 그 이름은 ‘근로봉사수업’이었다. 심지어 소학교 4, 5, 6학년 아동까지 동원하여 풀뽑기를 실시하였다.⁵⁶⁾ 미나미 총독은 불별대위 아래 용산육군묘지에서 일하고 있던 경기중학, 경성상업, 경기상업, 양정중학, 보성중학, 경성사범의 근로학생대를 순시하였다.⁵⁷⁾ 이 순시에는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 곤도(近藤) 비서관, 간사(甘蔗) 도지사, 高 경찰부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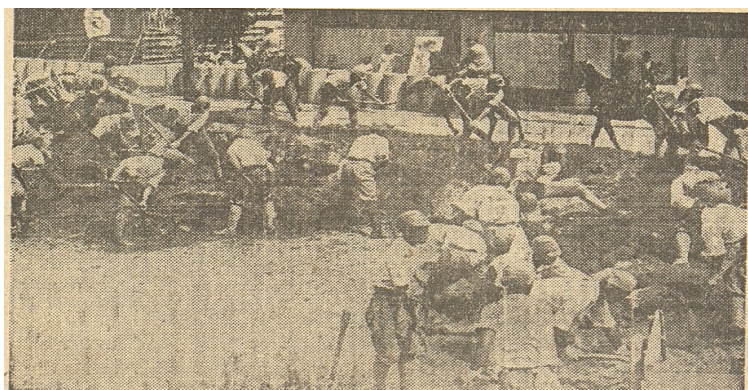
1939년도와 1940년도는 남학교에서는 주로 학교림 벌채 작업, 제방

56) 東亞日報, 1938.07.22.

57) 每日申報, 1939.07.28. 『남자다운 색이다』라고 미나미 총독 학생근로대 격려

수리, 학교부지 정지공사에 투입되었으며, 임도 개수 공사, 도로공사, 하천준설공사 등에 동원되었다. 주로 힘을 쓰는 토목공사 같은 작업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교의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정비 작업, 작업도구 세탁, 공장 수리 공사, 신사, 도로, 학교 내외 청소, 도로 청소, 세탁 봉사, 가사 재봉 등에 동원되었다. 부여신궁 조영작업에도 동원되었다.⁵⁸⁾

경성상업학교 학생들의 동원 현장



「京城商業の勤勞奉仕」『조선신문』 1938.7.28.

또한 1940년대의 특징적인 것은 이른바 ‘만주국 건설 봉사’라는 것이다. 주로 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1940년 8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생근로봉사대로서 각 전문학교, 특기반, 일반반이 만주에 파견되어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의료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일반반이 19일, 특기반이 20일에 귀환하였다.⁵⁹⁾

58) 朝鮮時報, 「學校勤勞報國際作業實施計劃成る, 私立學校も参加す 七月廿三日より十日間」, 1940.07.04.; 朝鮮時報, 「生徒四千名總出動汗の勤勞奉仕作業大體二十一日に開始式」, 1940.07.19.

59) 毎日申報, 1940.8.12.

[표 4] 1941-1945년도 일제의 ILO 국제법 주요 위반사례 (일부)

연번	출처	제목	색인어
1	매일신보 1941.10.12	학생들 근로봉사-군사령부 방공호 축조	조선군사령부, 방공호 축조, 경성중학교, 예가시라(江頭) 교장, 구라시게(倉茂) 보도 부장, 경기중학교
2	매일신보 1942.07.12	연 인원 35만 동원, 경기도 학도들 근로 작업에 총진격	관공립사립전문학교, 총독부, 경성부, 경기도, 조선신궁, 도로, 토목공사, 신궁·신사 경내 수리작업, 참배도로 조약돌 씻기
3	경성일보 1942.08.16	중등학생 5천 명으로 월월금금의 연성(鍊成), 8월 개교를 장식한 특별집단근로	선린, 보성중, 동성상, 대동상, 배재중, 휘문중, 중앙중
4	매일신보 1943.03.09	농사에 학생보국대, 적극적 동원계획을 수립, 연인원 7만 명, 4월부터 진군	조선학도 생도를 총동원, 고이소 총독, 경성제대, 신사 청소작업, 도로수선, 총독부 학무국, 농립국
5	매일신보 1943.04.15	5만 명이 성한(聖汗) 봉사, 부여신궁 근로 작업, 금일부터 개시	오야(大家) 연성부장, 미시마(三島) 중견청년수련소 가와시마(川島) 내무과장, 봉찬회, 경성여자실업학교, 경성무학교등여학교
6	매일신보 1943.07.22	1만 9,000의 학도, 송탄유 원료 채취 동원	석유, 까소링(가솔린), 총독부, 송탄유, 관솔채취, 중등학생
7	매일신보 1943.09.18	대피호 시설에 총력, 애국반 학도 봉사	항공보급진, 방공호, 대피호설비. 개인용대피호, 공공대피호
8	매일신보 1943.10.05	조영 근로봉사대, 부여신궁에	동덕고등여학교, 배화고등여학교, 경성덕수공립상업, 경성여자상업, 경성원에
9	매일신보 1943.10.29	송탄유 생산 성적 만점, 경기도 제3위	송탄유, 경북, 황해, 경기도, 와사용목탄
10	매일신보 1945.03.27	긴급중산책 각 도 광공부장회의 개최, / 80만 학도 동원	송탄유, 긴급중산방책, 총독부, 시오다(鹽田) 광공국장, 고이소(小磯) 수상, 항공연료,

1941년도의 특징적인 점은 경성의 학생들과 충남도의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부여신궁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일제는 황국 신민화를 위한 상징을 충청지역에 만들고자 하였고, 부여신궁을 조성하기 위해서 숙명여자전문대학과 실업학교 학생들을 대거 동원하였다. 이 관패 신궁 조성에는 경성제일공립여고, 동덕여고 등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선신궁과 관련해서도 동원하였는데, 봉찬전 확장공사나, 비석닦기, 주변 청소 등에도 동원하였다. 그해 5월 22일에는 조선신궁 앞에서 경성청년단 남녀 도합 약 10만 명이 발단식을 가졌는데, 35,000명이 동원되어 총독 앞에서 군사들과 같이 분열행진을 하였다. 1943년 10월에는 경성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부여신궁을 조영하기 위하여 경성에서 부여까지 가서 근로를 강요당하였다.⁶⁰⁾

부여신궁 작업에는 경성여자공립실업학교,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를 비롯하여, 동덕, 배화, 성신가정, 숙명여대 등 조선인 여학생들도 대거 동원하였으며, 한영중학원, 동인중학원, 조선교화학원 등 학생이 있는 곳은 대부분 참여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총독부는 재조일본인들과 조선인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무국의 학생 근로 동원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학생의 노동력까지 동원해야 했던 전쟁의 확대에 따른 ‘필요’와 학생의 ‘집단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점차 학생의 본분인 교육보다 노동의 비중이 강화되었다. 초기부터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근로보국대 동원에 응해야 했고, 공휴일과 방학마다 수시로 동원되었다.

1941년에 이르러서는 일제는 총력전 체제에 학생을 편입시켜 학도근로보국대를 결성했고, 연간 날짜를 정해둔 규정을 점차 상시적인 동원으로 전환하여 30일이던 기간도 60일로 연장하였다. 일제의 통치가 중국에 이르던 말기에는 수업이 중지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학생이

60) 毎日申報, 「조영 근로봉사대, 부여신궁에 금년 가을도 성초부대원」(1943.10.5.).

강제로 근로 동원되었다.⁶¹⁾

1941년 2월에는 일본 문부성과 농림성 주도로 증산운동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000만 명의 학생들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소학생, 중학생, 여학생, 고등전문학생, 대학생이었으며, 근로일수를 수업시간으로 대체하였다.⁶²⁾ 이것은 식민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그해 7월에는 대학의학부와 경성의전, 평양의전, 대구의전, 세브란스, 상공, 광전, 대동공전, 수원농전, 대동공전 등의 학생들이 만주로 파견되었다.⁶³⁾

1943년 9월 미군은 일본과 조선 해역 등에 폭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항공보급진과 방공연습을 위한 방공 기재 정비, 방공호, 대피호 설비. 개인용 대피호, 공공대피호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피호 시설에 총력전을 하였으며, 애국반 학생들이 근로 봉사라는 명목으로 경성 부내에 일제히 착공하였다.⁶⁴⁾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1945년까지 송탄유 작업에 집중하였는데, 송탄유는 항공연료로서 중요하게 쓰이는 군수물자이다. 1943년 총독부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송탄유를 대대적으로 채취하는데 중등학생 19,000명의 학생을 동원하였다.⁶⁵⁾ 총독을 역임한 고이소(小磯) 수상은 1945년 3월 27일 긴급증산책으로서 각 도 광공부장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시오다(鹽田) 광공국장은 80만 학도를 동원하여 송근, 송탄유 증산전을 초중등 남녀 학생들에게 채집하도록 명령하였다.⁶⁶⁾

61) 홍순권 외 5명, 앞의 책, 2011, 277~281쪽.

62) 毎日申報, 1941.02.14.

63) 朝鮮新聞, 1941.07.05.

64) 毎日申報, 1943.9.18.

65) 毎日申報, 1943.9.18.

66) 毎日申報, 1945.3.27.

V. 맺음말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총동원체제하에서 대 중국·소련·영미전으로의 확대에 따라 남부지역에 항공기지 건설과 경성지역에 대륙병참기지가 강화된 점을 밝히고, 총독부의 경성지역 학생 동원이 ILO국제법 제11조 학생 강제 근로 동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1930년 만주사변 이후 한반도는 대륙병참기지로 규정되어, 일제의 아시아태평양지구의 전쟁 전략에 따라 물자와 인력을 조달하는 국제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전쟁의 양상이 항공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항공기지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경성, 평양, 대구, 나남, 광주 군사지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경성 학생 강제동원의 피해 실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있다. 먼저, 용산군사지구의 연병장, 용산병원, 남산도로공사, 항공기지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른바 ‘만주개척단’으로 파견되어 학생들이 대중국과 소련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황국신민화 교육을 위한 부여신궁을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함께 경기도 학생들이 대거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처럼 풀뽑기나 벼베기 등 농산물 증산 작업이나, 항공기에 쓸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할당량을 주어 채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폭격이 전개되자,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총력전을 벌였으며, 항공기 엄폐시설, 방공호 파기, 개인용이나 공공용의 대피시설 만들기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이렇게 일본 참모본부가 경성학도근로동원본부를 통해 학생들을 강제 노동을 시킨 사실은 명백히 ILO의 국제법 제11조 학생 근로 동원 금지 조항과 제7조 미성년자 근로동원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렇듯 일본은 국제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를 강화하였다. 재조 일본인들을 포함하여 조선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

들은 모두 ‘근로가 곧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의 전쟁에 명백히 총동원되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조선인 학생들은 가장 밑바탕에서 희생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생 강제동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일제의 강제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본고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에서 학생 강제 동원은 명백히 식민지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초데이터와 근거자료는 향후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釜山日報』 『朝鮮時報』 『朝鮮新聞』
『朝鮮總督府官報』
內閣, 「國家總動員法を台灣・朝鮮・樺太に設置する件」, 1938.5.
內閣, 「朝鮮市街地計畫令中ヲ改正ス」, 『公文類聚・第六十四編・昭和十五・第百十六卷・地理・土地・森林・都市計畫、警察』 1940.11.29.
防衛廳防衛研修所,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航空部隊配置要圖, 1945.8.31
陸軍省, 「軍管區部隊方面軍隷下部隊人員調査表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數表」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08.15.~1945.08.31.)
第十七方面軍朝鮮軍管區參謀部, 「第17方面軍」, 『第17方面軍朝鮮軍管區諸部隊通稱号所在地一覽表 昭和20年7月10日現在』, 1945,
朝鮮總督府, 「國家情神總動員實施要綱」, 1937
朝鮮總督府, 「學徒勤勞報國隊實施要項」, 193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17年』, 1942.
- 김경남, 「1930·40년대 전시체제가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 한일관계사학회, 2009, 267~307쪽.
——, 「전시체제가 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35,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 173~211쪽.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嶺南學』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281~312쪽.
——, 「전시체제가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 내 항공기지의 건설 : 대한해협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24, 부산경남사학회, 2022, 307~343쪽.
——, 「대구·경북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嶺南學』 8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351~393쪽.
——, 「일제의 부산·경남권 전쟁 시설 설치와 학생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 『역사문화연구』 8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3, 3~40쪽.
김경호, 「전시체제가 경성 사람들의 저항」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 』, 서울역사편찬원, 2020
- 김상규, 「전시체제기(1937~1945) 조선 주둔 일본군의 육군병사부 설치와 역할」,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417~450쪽.
- 김윤미, 「일제말기 거문도 요새화와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22, 한일민족문제학회, 2012, 161~198쪽.
- , 「용산기지 일대 근현대문화유산」, 『Urban planners』 8-2,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2021, 46~52쪽.
- ,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27~162쪽.
- 김천수,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서울과 역사』 87, 서울역사편찬원, 2014, 163~210쪽.
- 김홍희, 「일제하 羅南의 군기지 건설과 군사도시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181~226쪽.
- 문혜진 외, 「근현대 용산기지를 둘러싼 神社의 변천사」, 『서울과 역사』 117, 서울역사편찬원, 2024, 58~94쪽.
- 서민교, 「만주사변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187~224쪽.
- ,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233~261쪽.
- 서인원,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 『한일군사문화연구』 35, 한일군사문화학회, 2022, 29~68쪽.
- 박명식, 「부평 조병창의 역사적 상징성과 유산 가치」, 『기전문화연구』 43-2,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22, 29~40쪽.
- , 「근대일본의 조선 주둔군에 대한 고찰-그 시원에서 1910년 한국병합까지」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2005
- 신주백,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 주둔 일본군」, 『한국사연구』 109, 한국사연구회, 2000, 113~152쪽.
- ,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7, 189~218쪽.

- _____,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7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231~273쪽.
- 염복규, 「1933~43년 일제의 경성시가지계획」, 『한국사론』 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233~283쪽.
- _____, 「일제하 여의도비행장의 조성과정과 항공사업의 양상」, 『서울과 역사』 104, 서울역사편찬원, 2020, 211~247쪽.
- 이민성, 「1910년대 중반 조선주둔 일본군 군영 배치계획과 군영 유지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83,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139~171쪽.
-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165~213쪽.
- 전성현, 「전시체제가 학교 대(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조선총독부의 학생동원정책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5, 255~293쪽.
- 조 건, 「전시체제가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조직과 활동」, 『승실사학』 27, 승실사학회, 2011, 81~116쪽.
- _____, 「일제 말기 일본군의 경성지역 조선인 군사동원과 관련 유적 현황」,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서울역사편찬원, 2020
- _____, 「일제 말기 仁川陸軍造兵廠의 地下化와 강제동원 피해」, 『한국 근현대사연구』 98, 한국근현대사학회, 2021, 171~214쪽.
- _____,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95~126쪽.
- 허수열, 「일제 말 조선 내 노동력동원의 강제성에 관한 고찰」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5
- 홍순권 외 5명, 『부산·울산·경남지역 항일운동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 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청구학술논집』 22, 2004
- 權學俊, 「植民地朝鮮における飛行機表象と朝鮮總督府の航空政策(下)」, 『立命館産業社会論集』 58-1, 立命館大学産業社会学会, 2022, p.123~149.
- 宮田節子, 『十五年戦争極秘資料集15-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朴廷鎬, 「近代日本における治安維持政策と國家防衛政策の挟間-朝鮮軍を中心に-」 『本郷法政紀要』 14,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 2005, p.229~271.
- 庵浴由香, 「朝鮮に常設された第19師團と第20師團」, 『地域と軍隊』 7, 坂本悠一 編,

吉川弘文館, 2015

曹 健, 「研究ノート:アジア太平洋戦争期の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軍の航空基地建設と運用」『軍事史学』58-2, 軍事史学会, 2022, p.53~70.

김경남, 『일제하 조선에서의 도시 건설과 자본가집단망』,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윤미, 「근로보국대 제도의 수립과 운용 : (1938~1941)」,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박사학위 논문, 2015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염복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 데아, 2016

조 건, 「전시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경남, 『일제의 식민도시 건설과 자본가』, 선인, 2015

_____,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중층적 결재구조로 본 식민지배』, 경북대출판부, 2020

김백영, 『지배와 공간 :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김인호,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1

서울역사편찬원, 『일제 말기 경성지역의 강제동원과 일상』, 경인문화사, 2020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동원』 1, 선인, 2012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주둔사』 중심, 200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 일월서각, 1989

토드 A. 헨리 지음. 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옮김,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치림, 202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山田昭次, 古庄 正, 桶口雄一,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06

Richard Burt, New weapon Technologieies, Adelphi Paper No.125, London, 1976

Abstract

**Japan's Strengthening of the Continent's Military
Supply Base and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 Focusing on Cases of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in the
Gyeongseong Area**

Kim, Kyung-na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 Gyeongseong (Seoul) under Japan's continental military supply base policy and total mobilization system. It clearly demonstrates that such mobilization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provisions prohibiting student labor.

The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 Gyeongseong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ree main aspects. First, students were deployed for military-relate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Yongsan military district, including drill grounds, Yongsan Hospital, the Namsan road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an airbase. Second, they were sent to the front lines of Japan's war against China as part of the 'Manchuria Construction' Corps. Third, large numbers of students from Gyeonggi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were mobiliz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Buyeo Shrine, a key site for Japan's imperial assimilation policy.

In addition, like students in other regions, they were forced to collect pine resin for oil production and mobilized to build aircraft shelters, dig air-raid trenches, and construct both private and public evacuation facilities. The colonial government's systematic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students through the Gyeongseong Student Labor Mobilization Headquarters wa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which prohibits the mobilization of students for labor, as well as Article 7, which bans the labor mobilization of minors.

Under the pretext that "labor is education," all students in Korea, including Japanese settlers, were conscripted into Japan's war effort. Among them, forcibly mobilized Korean students were among the most vulnerable, enduring severe exploitation and sacrifice at the lowest level of the forced labor hierarchy.

keywords :

Forced Mobilization of Student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Government-General of Chosun, Yongsan Military Base, Seoul (Gyeongseong), Continental Supply Base